

분단의 띠에서 초록의 생명띠로

- 그뤼네스 반트, 통일 독일의 생태적 상징이 되다

글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크리스티안 레웨링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연구원
번역 노현우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연구원 사진제공 한스자이델 재단

1949년 독일이 분단됐다. 많은 동독 시민들이 서독으로 떠났다. 동독 정부는 국경 지역에 군이 관리하는 요새와 감시초소를 세웠다. 동독은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후방 지역, 군경의 엄격한 감시를 받는 국경 지역 그리고 지뢰, 울타리, 총을 든 군인들 때문에 '그뤼네스 반트(죽음의 띠)'라 불린 동서 분단선 지역으로 나뉘었다. 서독 측 국경 지역도 다수의 군대가 주둔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뤼네스 반트는 동독의 폐쇄성에 대한 상징이었지만, 생태적으로는 긍정

적인 측면이 있었다.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총연장 1393킬로미터, 총면적 약 177제곱킬로미터의 이 띠 모양의 지역은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됐다.

독일의 습지상황은 이 같은 서식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독일 습지의 90퍼센트 이상이 지난 세기 동안 사라졌지만, 그뤼네스 반트 지역은 개개비와 같은 희귀 조류와 양서류의 유일한 보호구역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동·서 양측의 환경운동가들은 분단시절 이미 이런 사실에 주목해 이 지역에 대



흔적으로 남은 그뤼네스 반트의 옛 분단선. 자연은 초록의 힘으로 생태계를 재통합시켜간다

한 광범위한 생태조사를 양 정부에 요구하면서 이 지역 보존운동을 펼쳐왔다. 그뤼네스 반트의 탄생과 생태적 성장, 오늘날 독일 생태계에서의 지위 등 죽음의 피가 생명의 피로 변화하는 극적인 드라마를 따라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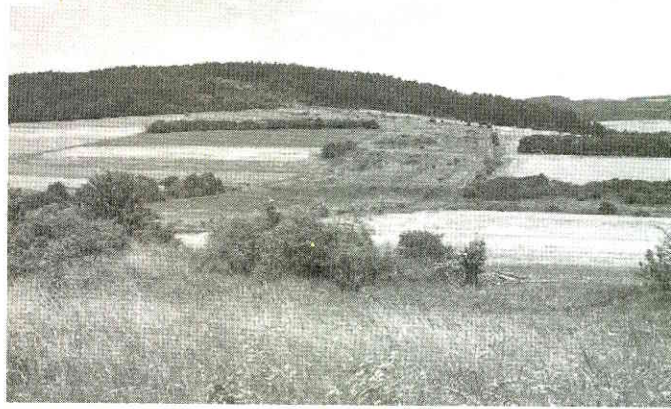
죽음의 피는 생명의 판도라였다

1954년에 첫 국경시설이 설치됐다. 이어 요새들이 등장했다. 50~100미터 너비의 그뤼네스 반트 지역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동독의 국경 인근 지역들이 희귀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와 포유류, 희귀 식물들의 피난처가 됐다. 그뤼네스 반트에는 알프스를 뺀 나머지 독일의 모든 주요 경관유형(landscape type)이 다 있었기 때문에 동식물의 광범위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이런 사실을 추적한 연구가 시작됐고 이후 많은 추가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들 조사를 통해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가 확인됐다. 그뤼네스 반트에는 독일의 다른 지역과 다른 개울과 강이 존재했다. 운송에 이용하려는 직강화 공사를 피한 덕에 생태적으로 우수한 조건들이 보존됐다. 이곳 수생태계는 민물 조개와 수달의 주요 서식처가 됐고, 자연상태를 유지한 초원은 파충류와 조류, 야생난초의 귀중한 보존지대가 됐다. 산림 또한 분단기간 동안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바이에른 주와 튀링엔 주 사이 국경 동남쪽 지대의 숲에서는 아주 희귀한 먹항새가 관찰될 정도였다. 멧닭, 쑥독새, 물총새, 큰제비갈매기 등 다른 희귀 조류들도 다수 발견됐다. 이 지역 숲에서만 130종의 새들이 발견됐고 그 중 30종은 멸종위기종들이었다.

그뤼네스 반트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 관한 이해는 국경 개방 이전에 이미 이를 보존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불러왔다.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을 대리해 국경지역 내 토지를 생태계 보존용으로 구입하거나 양국 <국경위원회>에 보존을 청원하고, 호론에 보존을 호소하는 등의 활동이 이어졌다.

그뤼네스 반트의 흔적을 따라 농토, 초지, 습지초원, 숲 등 다양한 토지상이 연결되어 있다



현명한 보호, 개발 압력을 이겨내다

1989년 국경 개방 직후 독일 최대의 환경단체인 분트(BUND)는 동·서독, 체코의 국경지대인 바이에른 주 호프 시에서 400여 명의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그뤼네스 반트 지역 보존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 ‘그뤼네스 반트’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옛 국경의 모든 흔적들을 없애자는 당시 가장 다수의 지지를 얻던 의견 대신 이 지역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목숨을 잃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비적 장소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의 생각은 불과 몇 달만에 독일사회에 널리 전파되고 수용되었다. 이러한 여론의 반전을 통해 통일과 동시에 개발의 위기에 직면했던 그뤼네스 반트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까지 참여하는 협력적 보호체제를 꾸리게 됐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 클라우스 퓌퍼 독일 환경부장관은 그뤼네스 반트가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뤼네스 반트의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자.”라고 촉구하게 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로 서독 농민들이 경작지 확대를 위해 토지 개발에 나서면서 약 11퍼센트에 달하는 그뤼네스 반트가 사라졌다. 남부 그뤼네스 반트

에서는 각종 보호조치들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반면, 남부지역보다 비옥하고 농업에 더 적합한 북부에서는 최대 7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뤼네스 반트가 보존 지역에서 빠지는 등 지역적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역적으로 그뤼네스 반트의 소실은 국경시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독일의회의 판단 착오 덕분에 강화됐다. 옛 국경지역의 50퍼센트는 연방정부 소유였으나 그 나머지 지역 소유권은 통일 이후 한동안 확실치 않았다. 1995년 독일의회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들을 분단 이전 소유자들이 할인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국가 소유지도 일반에 매각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즉시 연방 각 주의 환경장관들과 환경단체들은 그뤼네스 반트 보존선언을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보존행동에 나서, 그뤼네스 반트 내의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의 토지 구매를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보존운동이 활발히 진행됐고 결국 25차 '독일자연보호회의'에서 보존과 개발론자 사이의 공동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연방 환경보호청은 그뤼네스 반트 내의 주요 지역들에 대해 자연보호구역 지정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전체 그뤼네스 반트의 약 28퍼센트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약 38퍼센트는 '동식물 서식지 보호구역'(FFH-유럽연합의 지침에 의한 최상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전체 그뤼네스 반트의 약 85퍼센트는 자연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독일 정부는 그뤼네스 반트의 확장과 체계적 보호를 위해 그뤼네스 반트를 포함한 모든 국가자연유산지역을 주정부에 위임하겠다는 연립협정을 주정부와 체결했다. 2008년 지그마르 가브리엘 환경부장관은 이 협정에 의거해 국가자연유산을 자연보호란 특정기능과 함께

튀링엔 주에 넘긴다는 내용의 공문서에 사인했다. 연방정부와 다른 연방 주들 간의 협상은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뤼네스 반트가 지속적으로 보호, 보존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있게 됐다.

생태적 발전의 현장, 샬제

독일사회의 자연보호정책과 활동의 가장 성공적인 지역 사례의 하나는 쉘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와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 사이에 위치한 샬제(Schaalsee) 지역이다.

309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이 지역은 그 이름이 면적 24제곱킬로미터, 수심 72미터로 독일에서 가장 깊은 내륙호수인 샬제에서 비롯됐다. 이 지역은 황야, 습지, 평지, 초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발트 해안지대의 여러 서로 다른 경관지들이 멸종위기 목록에 포함돼 있는 동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부화하고 서식하는 유라시아 두루미는 샬제에서 사는 대표적인 희귀종이다.

샬제의 일부 구역은 1958년 동독 시절 조망보호지역(landscape protection area)으로 지정된 바 있고, 1960년에는 서독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1990년 통일 후에 샬제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10년이 더 걸렸다. 현재 이 지역은 모든 인위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6.2퍼센트의 핵심보호지역과 경미한 토지이용만 허용되는 28.9퍼센트의 보호지역 그리고 유네스코 프로그램인 '인간과 생물권'에 맞춰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뤄지는 64.9퍼센트의 보호지역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샬제 지역이 생태적 성공사례가 된

샬제 지역의 원만한 자연 이용 방법인 '두루미 추석'의 증서





이유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혁신적인 보존 접근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두루미 주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이 두루미 보호를 지지하고 생물권에 대해 공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노력은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는 시민의 행동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살제 지역이 다른 지역의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과거 산업 생산성이 낮아 한적한 시골지역이었던 살제는 이제 연간 4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태농업과 양봉 등 농업 부문과 음·숙업 관련 다양한 산업적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

그뤼네스 반트, 유럽의 모범이 되다

그뤼네스 반트의 변화는 독일에만 특별한 의미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이행경제체제의 국가들과 그들과 국경을 접한 나라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다. 유럽에는 8500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뤼

네스 반트가 존재한다. 이들 지역들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곳들을 지키기 위한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활동중이다. 독일의 선례를 따라 배운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서식지 네트워크의 보호활동은 생태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재통합(독일-체코 국경 사례나 발칸국가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냉전 시대의 적대감과 불신을 극복하고 유럽 통합과 그에 따른 제반 과제들의 해결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그뤼네스 반트 보호는 환경운동가들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중요한 임무이다.

2005년부터 한스 자이텔 재단 한국사무소는 고성군 및 강원도와 함께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 보호운동의 경험을 한국사회에 전하기 위한 활동을 펴고 있다. 통일 등 DMZ나 민통선 내의 군사적 대치상황 종료의 시기에 이들 지역에 대한 산업적 이용이 폭주하는 것을 막고 이곳을 생물권 보전지역과 같은 보호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의 '생명의 띠'가 전하는 교훈이다.